

건축의 모든 것 '광주건축대전' 개최

11~14일 예총회관 ... 미술대전서 분리 후 첫 독립 행사 공모·당선작 전시 ... 명예건축가전·건축가 유현준 강의

내가 사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건축과 도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이다. 오늘날의 건축과 도시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기술과 미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산물이다.

건축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고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한 '제1회 광주건축대전'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예총회관에서 열린다. 공모전과 당선작 전시회, 명예건축가전, 지역건축대전 교류전, 심포지엄으로 구성된 행사다.

이번 건축대전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박흥근)가 광주시미술대전전의 한 분야였던 건축을 분리·독립해 다양한 기획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다.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건축 분야만 따로 공모전을 진행해왔지만 광주는 올해 처음으로 독립해 행사를 치르게 됐다.

행사 주제는 오늘의 시대와 장소에 대한 건축적인 담론을 제안하는 의미를 담아 '적지적시(適地適時)'로 정했다.

가장 큰 행사인 공모전은 일반 공모전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



공모전 대상 700만원 등 총 1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광주·호남권을 포함 전국의 건축 전공 학생 및 기성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일반 공모전은 3차례

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공모 기간 중 접수된 190개 작품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해 132작품을 선정했고 2차 심사를 통해 10점을 선별한 후 11일 개막일 당일 10개팀의 포토폴리오 설명에 이어 대상작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개선하는 방법 등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찾는 공모전으로 모두 100여점이 접수됐다.

명예건축가전은 광주·전남에서 활동했던 건축가들을 기억하는 전시다. 올해는



고(故) 김한섭 건축가가 설계한 전남대 농대 본관.

지역 근대 건축 기반을 구축하는 데 공헌한 고(故)김한섭 건축가의 업적을 기린다. 근대건축가 1세대로 꼽히는 김 건축가는 조선대와 전남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한국건축가협회 전남지부와 대한건축학회 전남지부를 창립했다. 대표작으로 무등경시장, 전남대 농대 본관, 광주교육대 강의동 등이 있다.

타 지역의 건축 흐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지역건축대전 교류전은 부산, 울산, 대전, 전북, 대구 등 5개 지역 건축공모전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을 전시한다.

개막식이 열리는 11일(오후 4시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 공연장)에서는 건축대전 우수작품 시상식과 함께 건축대전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출산집'에 출연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 유현준(사진)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특별강연한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 베스트셀러를 펴낸 유교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gwangjuproject.kr)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경호·허지은 감독 연출 '신기록' 미장센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광주시·영상위 지원 성과

광주독립영화협회(대표 최성욱)는 지난 4일 폐막한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이경호, 허지은 감독의 공동 연출작 '신기록'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두 감독은 광주를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감독들로, 광주시와 광주영상위원회의 창작지원 사업인 '다양성 영화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비를 지원 받아 영화를 완성했다.

'신기록'은 가정 폭력의 골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현수(정경아)를 목격하는 소진(이태경)의 이야기로, 대사보다는 영화언어로 주제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배우 이태경이 주연을 맡았고, 광주 출신인 배우 정경아, 노희석이 출연했으며 오태승 촬영감독이 참여했다.

한편 미장센단편영화제는 2002년부터 해마다 '미장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Beyond the barrier of genres)'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으며 미장센 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 (주)아



이경호(왼쪽), 허지은 감독.



영화 '신기록'의 한 장면.

모래 퍼시픽 미장센이 후원한다.

봉준호, 박찬욱, 류승완 감독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영화제의 인지도를 높였고, 나홍진(곡성), 윤종빈(공작), 조성희(늑대소년), 김한민(명량), 이경미(비밀은 없다), 허정(숨바꼭질) 등 스타감독들이 이 영화제를 통해 배출되기도 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생각거리 주는 김진화의 쉼표

16일까지 화이트 큐브 갤러리

김진화는 다채로운 설치작품을 통해 각인된 작가다. 그림자와 LED 등을 활용한 작품들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이번에는 편안한 휴식의 느낌을 주는 소품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시 제목 역시 '쉼표'다.

김진화 작가 개인전이 오는 16일까지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해 문을 연 화이트 큐브 갤러리 1주년 기념 초대전으로 열리는 전시이기도 하다.

전시작 중 눈에 띄는 '공작' 시리즈는 휴식의 의미를 담아 작업했다. 화려한 공작

◀ 'The Tree IV'

의 날개와 하늘 위에 떠 있는 달, 나무들이 어우러지면서 안식을 전하고 주황빛 색감으로 표현된 또 다른 공작새는 생의 환희를 안겨준다.

김 작가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감상자에게 생각거리도 던져준다. 의자와 새, 빨래줄에 걸린 빨래 등 무심한듯 함께 배치되어 있는 사물들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 보게 한다. 또 폐가수수와 하늘 거리는 나무, 창문과 커튼 등 '한 공간'에 놓이기 어려운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놓음으로써 낯선 감성을 전하기도 한다.

그밖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의 모습,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열쇠를 찾는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탄 두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는 '달맞이꽃'도 눈길을 끈다.

창문, 여성, 나무 등이 어우러진 화폭에 조명을 집어 넣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작품들도 흥미롭다.

김씨는 지금까지 광주, 뉴욕, 서울 등에서 모두 16차례 전시회를 가졌으며 광주신세계미술상 대상, 하정웅청년작가상,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제4회 필룩스 조명아트페스티벌에서 당선됐다.

관람 시간 낮 12시30분~오후 8시30분(수·일요일 휴관).

문의 062-385-033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스릴러·로맨틱 ... 광주극장으로 피서 떠나요

8일 '잉글랜드 이즈 마인' ... 12일 '킬링 디어' '서버비콘' '너와 극장에서' 등

광주극장이 7월 개봉영화를 공개했다.

오는 8일 개봉하는 '잉글랜드 이즈 마인'은 밴드 '더 스미스'의 리드 보컬이자 작사가로 '위대한 브리티시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모리세이'의 음악적 여정, 그 출발점을 담고 있는 영화이다.

'모리세이' 역에는 잭 로던이 출연했으며 1980년대 영국 맨체스터를 배경으로 감각적인 복고풍 영상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팝 음악을 자극한다.

같은날 개봉하는 '메이플소프'는 모든 급기를 갠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사진들로 80년대 미국을 뜨겁게 만든 스펀들의 주인공이자 뉴욕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포토그래퍼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은 영화다.

요르코스란티모스감독의 신작으로 제70회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킬링 디어'는 12일 개봉한다.

성공한 외과 의사 스티븐과 그에게 다가온 소년 마틴이 등장하는 미스터리 복수 스릴러 영화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작가인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됐다.



'메이플 소프'의 한 장면.

조지 클루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서버비콘'도 같은 날 개봉한다. 천국이라 불리는 도시 '서버비콘'에 살고 있는 행복한 가장 '가드너'가 계획이 의외의 목격자로 인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잔이킬 수 없는 결말로 치닫게 되는 범죄 잔혹극이다.

'너와 극장에서'도 12일 만날 수 있다.

유지영, 정가영, 김태진 감독이 '극장'을 소재로 영화로운 낭만과 상상을 펼친 극장로맨스 영화이다.

'극장'을 소재로 영화로운 낭만과 상상을 펼친 극장로맨스 극장으로 가는 길, 극장에서 생긴 일, 극장이 남긴 감성을 담았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